

# 18세기 국어 부정문 연구\*

박형우\*\*

|| 차례 ||

- I. 서론
- II. ‘아니’ 부정문
- III. ‘뭇’ 부정문
- IV. 이중부정문
- 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18세기의 국어 자료에서 부정문을 분류하여 유형과 그 비율, 서술어의 형태론적 특징에 따라 정밀하게 살피고, 그 변화의 양상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세기 국어 부정문이 갖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이전 시기에 비하여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18세기 자료에서는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아니’ 부정문보다도 ‘뭇’ 부정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료 특성과 관련하여 사서언해와 역학서에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아니’, ‘뭇’ 부정문 모두 서술어의 형태적 조건에 따라 ‘합성어>파생어>단일어’

---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10-327-A00270). 논문 심사 과정에서 귀한 조언을 해주신 세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순으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나타난다.

주제어 : 18세기 부정문, 장형부정문화, 단형부정문 형성 제약, 단형부정문, 장형부정문

## I. 서론

18세기는 국어사적으로 전체 근대국어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근대국어 자체의 내적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18세기를 대상으로 한 부정문의 연구는 근대국어의 문법사 연구 전반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어 부정문에 대한 세기별 연구, 특히 18세기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개 근대국어 전반에 걸친 연구이거나 반대로 근대국어 시기에 해당하는 몇몇 대표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황병순(1980), 정영인(1989), 변정민(1998) 등은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이며, 김완진(1976), 김영근(1988), 이태욱(2001) 등은 후자에 속하는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허재영(2002)의 경우에는 근대국어의 시기를 세기별로 나누고 각 세기별 부정문의 특징을 살피고 있어서 본 연구의 방법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분석 자료가 전체 자료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한계(18세기 국어사 자료 12종에서 부정문을 검토한 것이다.)라 할 수 있다.

본고는 18세기 국어 자료에 나타난 부정문의 특징을 유형과 그 비율, 서술어의 형태론적 특징에 따라 살피고, 그 변화의 양상과 원인을 확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역사말뭉치 자료 중 18세기의 자료를 대상으로 unicon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정문을 분석하였다. 다만 청유문과 명령문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말다’ 부정문을

일단 제외하고, 자료 중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명백한 오각이나 오기로 보이는 자료 또한 그 논의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에 쓰인 18세기 국어사 자료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례석의	17??	속명의록	1778
선조행장	17??	왜어유해	1781
응진경	17??	제주대정정의운음	1781
삼역총해	1703	유경기대소민인등운음	1782
오륜전비	1721	유중외대소신서운음	1782
천자문-송광사	1730	유경기민인운음	1783
어제내훈	1737	유경기홍충도감사수령등운음	1783
역사서	1737	유경상도관찰사급진읍수령운음	1783
어제상훈	1745	유김재인서	1783
어제자성편	1746	유원춘도운음	1783
개수첩해신어	1748	유육도운음	1783
동문유해	1748	유함경도민인운음	1783
논어율곡언해	1749	유호남민인등운음	1783
대학율곡언해	1749	유호서대소민인등운음	1783
맹자율곡언해	1749	자훈전칙	1783
중용율곡언해	1749	사기호별진자운음	1784
주해천자문	1752	왕세자책례후운음	1784
지장경	1752	유제주민인운음	1785
어제훈서	1756	병학지남	1787
천의소감	1756	가체신금시목	1788
계주운음	1757	유함경도민인운음	1788
종덕신편	1758	몽어노결대	1790
보현행원품	1760	몽어유해 상,하	1790
어제경세문답	1761	몽어유해보	1790
어제경민음	1762	무예도보통지	1790
어제경세문답속록	1763	인어대방	1790
어제조훈	1764	침해몽어	1790
박통사신석언해	1765	유양주포천부로민인등서	1792

어제경세편	1765	중수무원론	1792
어제백행원	1765	제주대정정의의운음	1793
십구사략언해	1772	유제도도신운음	1794
역어유해보	1775	유호남옥읍운음	1794
엄불보권문-해인사	1776	양로무농운음	1795
효유운음	1776	중간노걸대언해	1795
명의록	1777	경신록언석	1796
소아론	1777	전설인과곡	1796
팔세아	1777	오률행실도	1797
방언유석	1778	제중신편	1799

## II. ‘아니’ 부정문1)

‘아니’ 부정문은 체언부정문과 용언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체언부정문인 ‘아니라’ 부정문은 고대국어에서부터 중세국어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18세기 국어사 자료 중에서 ‘아니라’ 부정문은 모두 1,272개를 확인하였다. ‘아니라’ 부정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ㄱ. 진실로 더의게 간첩헌 일이 **아니라** <伍倫1:57a>  
 ㄴ. 子 | ㄹ라사더 이논 聞이라 達이 **아니로다** <論栗3:32b>  
 ㄷ. 闕澤이 니로되 내 네게 웃는 거시 **아니라** <三譯總解6:12a>  
 ㄹ. 예 와셔는 갑술 至賤이 혀여 줄 썬 **아니라** <隣語5:3b>  
 ㅁ. 나의 능허는 배 **아니오** <警問續31b-32a>  
 ㅂ. 나의 억탁으로 널으미 **아니라** <어제훈서25a>

1) ‘아니’ 부정문의 부정소도 ‘아니’와 ‘안니’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전체적인 부정소의 대표 형태는 ‘아니’로 설정하고 특별히 부정소의 형태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그 형태를 밝히고 설명을 하도록 한다.

ㅅ. 호운자 압폐 현호미 **안니라** 비나의 여러 겁에 곤고히야 <地藏上 16a>

(1ㄱ)은 체언 뒤에 ‘아니라’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아니라’ 부정문이다. 이러한 부정문은 692개(54.40%)로 전체 ‘아니라’ 부정문 중 가장 많다. (1ㄴ)은 일반적으로 체언으로 쓰이지 않는 한자어를 부정하는 ‘아니라’ 부정문이다. 한자어의 의미를 고려하면 의미상으로는 용언 부정문이지만 형태상으로는 ‘아니라’ 부정문인 셈이다. 이러한 부정문은 주로 사서언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한자어를 과도하게 체언화하여 쓰는 언해문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1ㄷ~ㄹ)은 의존명사를 부정하는 ‘아니라’ 부정문이다. 이러한 부정문은 378개(29.72%)로 ‘아니라’ 부정문 중 비교적 그 비율이 높다. (1ㅁ)은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명사절을 부정하는 ‘아니라’ 부정문이다. ‘아니라’ 부정문 중에서 189개(14.86%)로 나타났다. 또한 18세기의 표기 혼란으로 인해 (1ㅅ)과 같이 ‘안니라’로 나타나는 경우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아니라’ 부정문 중에서 특이한 형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 ㄱ. 그 겁이 凶身과 밋 菩主로 더브러 親戚이며 **아니물** 못고 <無冤錄 1:15b>  
 ㄴ. 네 **아니** 이 張打油 ㄴ다(你莫不是張打油) <伍倫7:23b>  
 ㄷ. **아니** 老阿媽의 淡菜 | 가(莫不是老阿媽의淡菜) <伍倫4:8a>

(2ㄱ)은 밑줄 친 부분이 ‘親戚이 아니물’에서 ‘親戚’이 생략된 형태이다. 이러한 용례는 ‘증수무원록’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용례가 극히 적다. (2ㄴ, ㄷ)은 부정소 ‘아니’가 마치 단형부정문처럼 쓰이고 있으나 그 의미는 명사문의 부정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sup>2)</sup> 괄호 안의 원문을 보면 이 문장

2) ‘아니라’를 ‘아니+이다’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용례를 보면 (2)의 예는 마

은 형식상으로는 일종의 부정 의문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수사의문문으로 부정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문은 ‘오류전비’에서 많이 나타나고 ‘어제경세문답, 종덕신편, 명의를록, 전설인과곡, 중간노걸대언해, 어제경세문답속록’에서만 일부 나타나며 그 용례는 극히 적다.

용언부정문인 ‘아니’ 부정문의 경우에도 부정소의 형태는 ‘아니’형과 중첩 형태인 ‘안니’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안니’가 쓰인 예는 극히 적고 (0.54%), 아직 ‘안’과 같은 축약형이 보이지는 않는다. ‘안니’가 쓰인 예를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 ㄱ. 극낙의 간다 안니 흐는 사람과는 실노 낫다 <念海 일사본, 22a>  
 ㄴ. 다래기틀 온가지로 혼디 왕이 듯디 안니 흐더라 <사략2:74a>

‘아니’ 부정문 중 장형과 단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아니’ 부정소 형태에 따른 유형 분류

형태	안니		소계	아니		소계	합계		총계
	단형	장형		단형	장형		단형	장형	
용례	10	24	34	817	5,451	6,268	827	5,475	6,302
비율	29.41	70.59	100	13.03	86.97	100	13.12	86.88	100

‘아니’ 용언부정문에서는 장형이 86.8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17세기의 경우 ‘아니’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81.8%였던 점을 고려한다면(박형우, 2008: 227), 18세기에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ㄷ ‘아니’의 단형부정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고 해도 ‘아니’의 위치가 이례적인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

이러한 장형부정문화는 중세국어 시기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18세기 자료 전반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논어울곡언해, 대학울곡언해, 맹자울곡언해, 중용울곡언해’ 등 사서언해의 경우 다른 자료에 비하여 장형부정문화가 더 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자료들의 장형부정문 비율은 각각 93.48%, 100%, 89.87%, 97.85%이다. 또한 주로 역학서의 경우 구어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전 자료에서는 단형부정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나 18세기의 자료에서는 이미 이 경우에도 장형부정문화가 매우 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삼역총해, 개수첩해신어, 박통사신석언해, 역어유해보, 소아론, 팔세아, 방언유석, 왜어유해, 몽어노걸대, 인어대방, 첩해몽어, 중간노걸대언해’ 등의 자료가 18세기의 역학서인데 장형부정문의 비율을 보면 ‘역어유해보(72.22%), 소아론(40%), 방언유석(66.67%), 인어대방(60%)’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역학서의 경우에는 장형부정문이 평균 비율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3)</sup> 17세기의 역학서들을 살펴보면 ‘노걸대언해’ 77.89%, ‘박통사언해’ 93.85%, ‘역어유해’ 73.91%, ‘첩해신어’ 76.92%가 ‘아니’ 장형부정문의 비율이었다. 18세기 자료 중 이들 문헌과 관련이 있는 자료에서는 모두 이전보다 높은 ‘아니’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나타났다. 특히 17세기 자료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아니’ 장형부정문 비율을 보인 ‘박통사언해’도 18세기 ‘박통사신석언해’에서는 95.35%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자료별로 ‘아니’ 부정문의 장단형 비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3) 18세기 자료 중 ‘왜어유해’의 경우에는 ‘아니’ 부정문의 예가 없다. 16세기의 역학서에서 ‘아니’ 부정문의 장형 비율은 박형우(2005: 11)에 의하면 ‘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의 경우 66.0%와 66.7% 정도였다. 이와 비교하면 18세기에서는 구어적 성격을 반영하는 역학서에서도 장형부정문화가 강한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자료별 '아니' 부정문의 장단형 비율

자료	단형	장형	소계	자료	단형	장형	소계
가례석의	0	1	1	방언유석	6	12	18
	0.0	100			33.33	66.67	
선조행장	14	96	110	속명의록	14	85	99
	12.73	87.27			14.14	85.86	
응진경	0	27	27	유경기대소민인 등윤음	1	8	9
	0.0	100			11.11	88.89	
삼역총해	19	136	155	유중외대소신서 윤음	7	23	30
	12.26	87.74			23.33	76.67	
오륜전비	41	563	604	유경기민인윤음	0	4	4
	6.79	93.21			0.0	100	
어제내훈	79	317	396	유경기홍충도감 사수령등윤음	1	3	4
	19.95	80.05			25.00	75.00	
여사서	25	289	314	유경상도관찰사 급진읍수령윤음	1	9	10
	7.96	92.04			10.00	90.00	
어제상훈	0	29	29	유김제인서	2	5	7
	0.0	100			28.57	71.43	
어제자성편	8	185	193	유원춘도윤음	1	9	10
	4.15	95.85			10.00	90.00	
개수첩해신어	7	79	86	유육도윤음	2	7	9
	8.14	91.86			22.22	77.78	
동문유해	0	5	5	유함경도민인 윤음	0	5	5
	0.0	100			0.0	100	
논어올곡언해	24	344	368	유호남민인등 윤음	4	15	19
	6.52	93.48			21.05	78.95	
대학올곡언해	0	30	30	유호서대소민인 등윤음	3	12	15
	0.0	100			20.00	80.00	
맹자올곡언해	38	337	375	자훈전칙	2	9	11
	10.13	89.87			18.18	81.82	
중용올곡언해	2	91	93	사기호별진자 윤음	0	8	8
	2.15	97.85			0.0	100	

지장경	15	62	77	왕세자책례후 윤음	1	3	4
	19.48	80.52			25.00	75.00	
어제훈서	5	71	76	유제주민인윤음	1	6	7
	6.58	93.42			14.29	85.71	
천의소감	54	275	329	병학지남	3	39	42
	16.41	83.59			7.14	92.86	
계주윤음	3	24	27	가채신금사목	4	17	21
	11.11	88.89			19.05	80.95	
종덕신편	24	209	233	유함경도민인 윤음	2	3	5
	10.30	89.70			40.00	60.00	
보현행원품	0	12	12	몽어노걸대	7	63	70
	0.0	100			10.00	90.00	
어제경세문답	17	114	131	몽어유해보	2	26	28
	12.98	87.02			7.14	92.86	
어제경민음	1	13	14	무예도보통지	0	4	4
	7.14	92.86			0.0	100	
어제경세문답 속록	19	92	111	인어대방	72	108	180
	17.12	82.88			40.00	60.00	
어제조훈	10	99	109	첩해몽어	8	57	65
	9.17	90.83			12.31	87.69	
박통사신석연해	8	164	172	증수무원론	16	216	232
	4.65	95.35			6.90	93.10	
어제경세편	7	93	100	제주대정정의 윤음	0	3	3
	7.00	93.00			0.0	100	
어제백행원	6	13	19	유제도도신윤음	3	11	14
	31.58	68.42			21.43	78.57	
십구사략연해	15	123	138	유호남육읍윤음	3	1	4
	10.87	89.13			75.00	25.00	
역어유해보	5	13	18	양로무농윤음	1	7	8
	27.78	72.22			12.50	87.50	
염불보권문 -해인사	33	24	57	중간노걸대연해	12	99	111
	57.89	42.11			10.81	89.19	
효유윤음	1	4	5	경신록언석	25	142	167
	20.00	80.00			14.97	85.03	

명의록	86	324	410	전설인과곡	22	0	22
	20.98	79.02			100	0.0	
소아론	3	2	5	오률행실도	32	193	225
	60.00	40.00			14.22	85.78	
팔세아	0	3	3				
	0.0	100					

18세기 ‘아니’ 부정문 중에서 단형부정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4) ㄱ. 나의 명호 외오니면 약취중에 **아니** 가고 <念海 일사본, 42b>  
 ㄴ. 일국지봉을 두어시나 부되 다 **아니** 겨시니 <선조행장015>  
 ㄷ. 老人의 泄瀉가 **아니** 어렵스온가 <隣語8:8b>  
 ㄹ. 틱령다이 아니나 **아니** 자바가디 못홀디니 <念海 일사본, 왕랑반혼전 3b>  
 ㄹ. **아니** 목메여 슬허허리 업더라 <선조행장099>  
 ㅂ. 飛火 **아니** 박히는 불 <亥部方言10a>  
 ㅅ. 낸들 자너니를 **아니** 스랑허리인가 <隣語5:7a>  
 ㅇ. 늘근 선비와 유명훈 스승이라도 **아니** 탄복허리 업더라 <선조행장 032>  
 ㅈ. 飮食을 싱각 **아니** 흐느니 <老乞重下39a>  
 ㅊ. 부모 부르는 말 즉시 대답 **아니** 흐고 <인과곡9a>

(4ㄱ)은 고유어 어간을 가진 동사가 단형부정문을 이룬 예이고, (4ㄴ)은 소위 존재사 ‘겨시-’가 단형부정문을 이룬 예인데 그 예가 많지는 않다. (4ㄷ)은 형용사가 단형부정문을 이룬 예이고, (4ㄹ)은 합성용언이 단형부정문을 이룬 예이다. 이렇게 용언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용언이 단형부정문을 이룬 예도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다.<sup>4)</sup> (4ㄹ)은 선행 어근이 체언인 합성어

가 단형부정문을 이룬 경우인데 18세기 부정문에서도 이러한 예는 극히 적다. (4ㄴ)은 파생접사가 결합한 용언이 단형부정문을 이룬 예이다. (4ㄷ)과 (4ㄹ)은 모두 체언에 접사 ‘-하다’가 결합한 용언이 단형부정문을 이룬 예인데 각각 고유어 체언과 한자어 체언이 접사 ‘-하다’와 결합한 예로 그 수는 많지 않다. (4ㄷ)과 (4ㄹ)은 부정소 앞에 나타나는 체언이 ‘하-’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으나 ‘싱각하다’와 ‘디답하다’를 하나의 용언으로 본다면 부정소가 체언 어근과 접사 사이에 위치한 단형부정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문은 18세기 자료에서 나타나는 (4ㄷ)과 (4ㄹ)과 같은 단형부정문 형성 제약을 피하기 위한 부정문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아니’ 단형부정문 중 특이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5) ㄱ.懸만 먹음이 범에 **아니** 너무 적으니잇가 <御內2:38b>  
 ㄴ.當初부터 그리 하시더면 인역인들 **아니** 싱각이 일스올가 <隣語 9:17b>  
 ㄷ. 초일일의에 작헌네로 나오혀 하시니 **아니** 모년에 먹음이 조<sup>조</sup>하사  
 그러<sup>하</sup>시니잇가 <警問續44b>  
 ㄹ. 내 위의 평안<sup>하</sup>며 **아니**키는 오히려 내 몸의 일이라 <明義卷首下존  
 현각일과:3a>  
 ㄷ. 이 번 과거를 보며 **아니**를 못스오니 <명의록, 明義卷首上:28b>  
 ㄷ. 그 숙질이 우리 집으로 더부러 본디 하하 **아니** 하니 더해 미리 알으  
 쇼셔 <明義卷首上:12b>  
 ㄷ. 내 것 가져 나 먹으며 남의 것술 탐 **아니**면 무슴 죄악 되올손가  
 <인과곡2a>

(5ㄱ)은 ‘아니’가 ‘너무’라는 부사 앞에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인 단형부

4) 합성용언에서 어근과 어근 사이에 부정소가 개입하는 예가 이전 시기의 부정문에서 는 일부 나타났으나 18세기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정문의 위치와 차이를 보인다. (5ㄴ)도 부정소 ‘아니’가 주어인 ‘싱각’의 앞에 나타나고 있으며, (5ㄷ)도 부정소 ‘아니’가 부사어 앞에 나타나고 있다. (5ㄱ~ㄷ)은 모두 일종의 부정소가 포함된 수사의문문이라 할 수 있는데 (2ㄴ, ㄷ)과 같이 수사의문문에 나타나는 특정한 문장 형식으로 볼 수 있다. (5ㄹ, ㅁ)의 부정소 ‘아니’는 ‘아니ㅎ-’의 준말로 보이는데 각각 ‘아니 평안ㅎ-’와 ‘아니 보-’를 대신하여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ㅎ-’가 대동사로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니(ㅎ-)’가 선행 서술어를 부정하는 대동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5ㄴ)의 예문은 ‘조하ㅎ-’라는 서술어 중간에 부정소 ‘아니’가 삽입되어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예이다. 현대국어에서는 ‘좋아하다’가 하나의 단어이지만 어원상으로는 어간 ‘똥-’에 연결어미 ‘아’가 결합하고 보조용언 ‘하다’가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보조용언 앞에 부정소가 쓰여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다.<sup>5)</sup> 18세기에 ‘조하ㅎ-’가 ‘본용언+보조용언’의 구성의 단어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러한 예는 극히 드물게 나타났다. (5ㄴ)은 ‘탐(貪)ㅎ-’를 부정하는 단형부정문이라 할 수 있는데 부정소의 위치가 역시 한자어 어근 ‘탐’과 접사 ‘ㅎ-’ 사이에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다.<sup>6)</sup>

18세기 ‘아니’ 부정문 중에서 장형부정문의 유형은 단형부정문의 경우보다 훨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단 장형부정문을 연결어미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6) ㄱ. 漢 樂羊子 | 游學ㅎ야 **오라디 아니ㅎ야** 도라왔거늘 <女四4:57a>  
 ㄴ. 大人은 小人의 허물을 **보지 아니ㅎ다** ㅎ니라 <朴新2:13b>

5) 현대국어의 구어에서도 ‘좋아 안 해’와 같은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표현이 18세기에 등장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6) ‘탐’을 체언으로 보고 조사가 탈락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탐’을 독립적인 단어로 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근과 접사 사이에 부정소가 삽입된 단형부정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ㄷ. 눈섭이 프르도 아니코 희도 아니혀 동화 혼 가지 곳흐니 <伍倫 5:16b>

ㄹ.病患으로 推托혀여 나와 보들 아니혀니 <隣語4:13b>

ㄱ. 그리 니르시미 그르든 아니켜니와 <改捷4:37b>

구개음화의 영향으로 인해 연결어미 ‘-디’와 ‘-지’의 혼용이 17세기 이후로 나타나고 있다. (6ㄱ)은 중세국어 시기부터 쓰이던 대표적인 연결어미인 ‘-디’의 용례이고, (6ㄴ)은 구개음화로 인해 나타난 연결어미 ‘-지’가 장형부정문에 쓰인 예이다. 18세기의 ‘아니’ 장형부정문에서는 이전 시기에 비하여 ‘-지’의 쓰임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디’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18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디’보다는 ‘-지’를 연결어미로 사용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6ㄷ)은 ‘-도’가 연결어미로 쓰인 예인데 일반적인 연결어미가 생각되고 보조사 ‘-도’가 쓰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는 대부분 (6ㄷ)의 예와 같이 서로 대구를 이루는 두 서술어 모두를 부정하는 장형부정문의 연결어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sup>7)</sup> (6ㄹ)의 예 역시 연결어미로 ‘-들’이 쓰인 장형부정문이다. 이러한 예는 18세기 자료에서 매우 적으며 ‘-들’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대국어 일부 방언에서 ‘-들’이 쓰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6ㄱ)에서는 연결어미로 ‘-든’이 쓰인 것인데 ‘-든’이 쓰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 역시 용례는 많지 않다. 연결어미에 따라 장형부정문의 유형별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이러한 연결어미 ‘-도’의 쓰임은 중세국어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현대국어에서도 ‘오도 가도 앓고’와 같이 쓰이는 용례가 있다.

〈표-3〉 연결어미에 따른 ‘아니’ 장형부정문의 유형 분류

연결어미	-디	-지	특이 형태	소계
용례	3,701	1,746	28	5,475
비율	67.60	31.89	0.51	100

‘아니’ 장형부정문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7ㄱ) 서러 만나 **떡디 아니코** 속절업시 도라가면 <伍倫1:4a>  
 ㄴ. 能히 動홀 者 | **있디 아니흐니라** <孟栗4:24a>  
 ㄷ. 피 돌히 무더 시스도 **업디 아니흐더라** <女四4:26b>  
 ㄹ. 才 어렵다 호미 그 **올티 아니흐냐** <論栗2:39a>  
 ㄹ. 혼 사름도 **죽이디 아니흐고** <種德中43a>  
 ㅂ. 내 석 들을 셔울 **드러오디 아니흐여시니** <續明1:14b>  
 ㅅ. 이룰 **심각디 아니흐면** 혼갓 陟降을 저버릴 뿐이 아니라 <어제훈 서16a>  
 ㅇ. 네 형이 비록 才能이 업스나 감히 **服膺디 아니흐라** <伍倫4:38a>

(7ㄱ)은 고유어 동사가 장형부정을 이룬 전형적인 ‘아니’ 장형부정문이 고, (7ㄴ)과 (7ㄷ)은 존재사 ‘있-’과 ‘없-’이 장형부정문을 이룬 것이다. 존재사의 부정문은 단형부정문보다는 장형부정문의 용례가 훨씬 더 많다. (7ㄷ)의 경우에는 형용사가 장형부정문을 이룬 예이다. 일반적으로 ‘아니’ 장형부정문의 경우에는 품사에 따른 부정문 형성 제약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7ㄹ)은 사동접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장형부정문을 이룬 예이고 (7ㅂ)은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합성용언이 장형부정문을 이룬 예이다. (7ㅅ)과 (7ㅇ)은 각각 체언 어근을 가진 파생용언이 장형부정문을 이룬 예인데 단형부정문과 비교하여 그 용례가 매우 많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언의 경우에는 단형부정문보다는 대부분 장형부정문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 장형부정문 중 특이한 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8) ㄱ. 검붉고 돈돈티는 아니니라 <無冤錄3:24a>  
 ㄴ. 나는 더욱에 드지 아니허리라 ㅎ고 <念海 일사본, 18b>  
 ㄷ. 진실로 夫子 | 글티 아니며 笑티 아니며 取티 아니티냐 <論栗 3:61a>  
 ㄹ. 信使피셔 니락시지 아닌 전의 奉行네피로서 이 뜯을 슬오라고 <改捷8:6b>  
 ㅁ. 평안치 아니하면 동궁이 평안치 아니시리라 ㅎ야 <明義2:15b>  
 ㅂ. 마당히 너기시지 아니실가 근심 ㅎ느이다 <改捷5:38a>  
 ㅅ. 부인이 받드시 오래 기드렛지 아녀시리니 <敬信,45a>

(8ㄱ)은 연결어미 뒤에 보조사 ‘-는’이 결합한 장형부정문이다. (8ㄴ)은 ‘ㄹ’을 말음으로 갖는 용언 어간이 연결어미 ‘-지’ 뒤에서 ‘ㄹ’이 탈락하는 활용을 보인 것이다. 중세국어에서도 ‘ㄹ’을 말음으로 가진 어간은 ‘-디’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근대국어의 18세기까지도 이러한 활용 방식은 그대로 쓰이고 있어서 현대국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8ㄷ)에서는 장형부정문에 쓰인 본용언의 어간이 ‘言 ㅎ-, 笑 ㅎ-’와 같이 단음절의 한자어를 가진 경우인데 ‘取 ㅎ-’와는 달리 이러한 한자어 어근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하나의 용언으로 기능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장형부정문은 주로 사서언해와 같은 경서 언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말에 쓰인 일반적인 한자어 어근 용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sup>8)</sup> (8ㄹ~ㅂ)은 장형부정문에서 주체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8) 이러한 부정문 형식이나 (1ㄴ)과 같은 부정문 형식이 사서언해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관련 문헌의 특성상 독자의 수준이나 상황을 고려한 언해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쓰인 예인데 (8ㄷ)에서는 본용언에만 쓰였고, (8ㄱ)에서는 보조용언만 쓰인 예이다. (8ㄴ)에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모두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시-’가 쓰이고 있다. (8ㄷ)의 예문은 ‘기드렸지’에서 ‘엇’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예문이다. ‘엇’에 대해 중세 국어의 경우와 같이 ‘어 잇-’의 축약형으로 본다면 ‘오래 기다리고 있지 아니흐-’의 의미로 볼 수 있고 만약 근대국어 등장한 과거시제의 선어말어미로 본다면 장형부정문의 본용언에 시제소가 결합한 특수한 예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문에서 ‘아녀시리니’ 역시 문제가 된다. ‘아녀시리니’에서 역시 ‘엇’을 분석할 수 있는데 ‘아니하였으리니’ 혹은 ‘아니하고 있으리니’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예문과 관련한 문맥을 보면 ‘벽송’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밖에 나가 자게 되었는데 그 부인이 잠들지 않고 밤새 남편을 기다리는 바람에 도적의 노략질을 피해 바로 도망하여 큰 화를 면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드렸지’는 ‘기다리고 있지’로, ‘아녀시리니’는 ‘아니하였으리니’ 정도로 해석하는 가능하다.

서술어 형태적 유형에 따라 ‘아니’ 부정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표-4〉 서술어의 형태적 특징에 따른 ‘아니’ 부정문의 비율

형태	유형	사례	비율	어간, 어근 특성	
				고유어	한자어
단일어	단형부정문	679	18.81	15.68	
	장형부정문	2,931	81.19	67.71	
	소계	3,610	100.0		

9) ‘아니’ 부정문 중 장형부정문에서 특이한 연결어미를 나타내는 부정문을 제외하고 총 6,274개의 부정문 분석하였는데 고유어 어간이나 어근을 가진 서술어가 4,329개, 한자어 어근을 가진 서술어가 1,945개로 나타났다.

파생어	아니 고유어 어간+접사	3	0.12	0.07	
	아니 고유어 어근+ㅎ다	8	0.33	0.18	
	아니 한자 어근+ㅎ다	38	1.58		1.95
	고유어 어근 아니 ㅎ다	26	1.08	0.60	
	한자 어근 아니 ㅎ다	66	2.74		3.39
	고유어 어간+접사+디 아니 ㅎ다	233	9.68	5.38	
	고유어 어근+ㅎ디 아니 ㅎ다	193	8.01	4.46	
	한자 어근+ㅎ디 아니 ㅎ다	1,841	76.45		94.65
	소계	2,408	100.0		
합성어	아니 고유어 합성어간	7	2.73	0.16	
	고유어 어근 아니 ㅎ다	0	0.00	0.00	
	고유어 어간+디 아니 ㅎ다	249	97.27	5.75	
	소계	256	100.0	100.0	100.0

부정문의 서술어가 단일어일 때는 장형부정문 비율이 81.19%로 나타났고, 파생어의 경우에는 단형부정문 5.85%를 제외하면 모두 장형부정문으로 쓰였다. 합성어의 경우에는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97.27%였다. 특히 한자어 어근을 가진 서술어의 경우에도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94.6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자어나 고유어 어근을 가진 파생어가 서술어로 쓰일 때, 그리고 합성용언이 서술어로 쓰일 때 장형부정문화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결국 전체적인 장형부정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Ⅲ. ‘뭇’ 부정문<sup>10)</sup>

18세기 ‘뭇’ 부정문의 경우 부정소는 ‘몰’과 ‘뭇’의 두 형태가 나타나고

10) ‘뭇’ 부정문에서 일반적으로 18세기 자료에서는 부정소로 ‘뭇’이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 부정소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뭇’을 대표 형태로 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있다. 이전 시기부터 ‘못’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몰’보다도 ‘못’이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sup>11)</sup>

- (9) ㄱ. 여러 將軍들을 불러 뵈셔 **몰** 티오고 <朴新3:58a>  
 ㄴ. 婦 | 그 지아비 죽디 **몰**함을 붓그려 흐며 <女四4:39a>  
 ㄷ. 빈인이 어더셔 태반을 **못** 쓰느니라 <敬信,79b>  
 ㄹ. 그디 복과 목숨은 가히 헤아리디 **못**흐리라 <種德上18a>

(9ㄱ, ㄴ)은 부정소 ‘몰’이 쓰인 예이고, (9ㄷ, ㄹ)은 ‘못’이 부정소로 쓰인 예이다. 18세기의 ‘못’ 부정문에서는 ‘몰’으로 쓰인 예가 1,072개(21.32%), ‘못’으로 쓰인 예가 3,955개(78.68%)로 ‘못’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5〉 ‘못’ 부정소 형태에 따른 유형 분류

형태	몰		소계	못		소계	합계		총계
	단형	장형		단형	장형		단형	장형	
용례	131	941	1,072	423	3,532	3,955	554	4,473	5,027
비율	12.22	87.78	100	10.70	89.30	100	11.02	88.98	100

‘못’ 부정문에서 전체 장단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장형이 전체 부정문의 88.98%로 ‘아니’ 부정문의 경우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박형우(2008: 227)에 따르면 17세기 ‘못’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79.61%였으나 18세기에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7세기와 달리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못’ 부정문의 장형부정문화가 ‘아니’ 부정문에서보다도 앞서게 되었다.

11) 17세기의 경우에는 부정소 ‘몰’이 쓰인 예문이 1,478개(60.62%), ‘못’이 쓰인 용례가 960개(39.38%)로 ‘몰’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었다.

18세기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부 ‘못’ 부정문에서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헌이 있기도 하지만<sup>12)</sup>, ‘대학을곡언해, 중용을곡언해, 보현행원품, 어제경민음, 효유운음, 유경기민인운음, 사기호별진자운음, 제주대정정의운음, 유제도도신운음, 유호남육읍운음, 양로무농운음’ 등의 자료에서는 장형부정문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대학을곡언해, 보현행원품, 유경기민인운음, 사기호별진자운음, 제주대정정의운음’ 등은 ‘아니’ 부정문의 예에서도 장형부정문만 나타난 자료였다.

용례가 100개 이상으로 비교적 많은 예가 나타나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삼역총해’의 ‘못’ 장형부정문이 98.52%로 가장 비율이 높고, ‘인어대방’의 경우가 54.37%로 가장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논어올곡언해, 대학을곡언해, 맹자올곡언해, 중용올곡언해’ 등에서는 ‘못’ 부정문의 장형부정문화가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장형부정문 비율은 각각 96.23%, 100%, 96.97%, 100%이다.

이미 18세기의 역학서 자료에서 ‘아니’ 부정문의 장형부정문화가 매우 강하게 진행되었음을 살펴보았는데 ‘못’ 부정문의 장형부정문화도 일부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삼역총해, 박통사신석언해, 소아론, 몽어노걸대, 첩해몽어, 중간노걸대언해’ 등에서는 장형부정문화가 강하게 나타났고, ‘개수첩해신어(71.23%), 억어유해보(63.13%), 방언유석(67.86%), 왜어유해(0%), 인어대방(45.63%)’ 등에서는 장형부정문화가 다른 자료보다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sup>13)</sup> 17세기의 역학서들 중에서 ‘못’ 부정문의

12) 100개 이상의 예문이 나타난 자료 중에서 ‘못’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자료로는 ‘인어대방(‘못’ 부정문 103개 중 45.63%), 경신록언석(‘못’ 부정문 153개 중 30.07%)’이 있다.

13) 박형우(2005: 11)에 의하면 16세기 자료 중 ‘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의 경우 ‘못’ 장형부정문의 비율은 전체의 77.4%와 70.6%였다. 이와 비교하면 18세기에서는 장형부정문화가 더 강하게 진행되어 구어의 영향이 강한 역학서에서도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형부정문 비율을 살펴보면 ‘노걸대언해’ 84.54%, ‘박통사언해’ 88.55%, ‘역어유해’ 55.17%, ‘칩해신어’ 66.67%가 ‘뭇’ 장형부정문의 비율이었다. 18세기 자료 중 이들 문헌과 관련이 있는 자료에서는 모두 이보다 높은 ‘뭇’ 장형부정문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7세기 자료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뭇’ 장형 부정문 비율을 보인 ‘박통사언해’도 18세기 ‘박통사신석언해’에서는 91.36%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자료별로 ‘뭇’ 부정문의 장단형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6〉 자료별 ‘뭇’ 부정문의 장단형 비율

자료	단형	장형	소계	자료	단형	장형	소계
선조행장	18	86	104	속명의록	12	61	73
	17.31	82.69			16.44	83.56	
응진경	1	28	29	왜어유해	1	0	1
	3.45	96.55			100	0.0	
삼역총해	2	133	135	제주대정정의운음	1	2	3
	1.48	98.52			33.33	66.67	
오륜전비	19	441	460	유경기대소민인등 운음	6	8	14
	4.13	95.87			42.86	57.14	
어제내훈	30	143	173	유중외대소신서운 음	1	35	36
	17.34	82.66			2.78	97.22	
여사서	16	172	188	유경기민인운음	0	4	4
	8.51	91.49			0.0	100	
어제상훈	2	25	27	유경기홍충도감사 수령등운음	1	8	9
	7.41	92.59			11.11	88.89	
어제자성편	5	134	139	유경상도관찰사급 진읍수령운음	1	7	8
	3.60	96.40			12.50	87.50	
개수첩해신어	21	52	73	유김재인서	1	2	3
	28.77	71.23			33.33	66.67	
동문유해	4	4	8	유원춘도운음	2	11	13
	50.00	50.00			15.38	84.62	

논어올곡언해	9	230	239	유함경도민인윤음	3	9	12
	3.77	96.23			25.00	75.00	
대학올곡언해	0	31	31	유호남민인등윤음	8	14	22
	0.0	100			36.36	63.64	
맹자올곡언해	9	288	297	유호서대소민인등윤음	1	7	8
	3.03	96.97			12.50	87.50	
중용올곡언해	0	52	52	자훈전칙	1	6	7
	0.0	100			14.29	85.71	
지장경	19	39	58	사기호별진자윤음	0	9	9
	32.76	67.24			0.0	100	
어제훈서	1	48	49	왕세자책례후윤음	1	6	7
	2.04	97.96			14.29	85.71	
천의소감	27	346	373	유제주민인윤음	0	5	5
	7.24	92.76			0.0	100	
계주윤음	6	26	32	병학지남	1	17	18
	18.75	81.25			5.56	94.44	
종덕신편	22	176	198	가체신금사목	2	17	19
	11.11	88.89			10.53	89.47	
보현행원품	0	10	10	유함경도민인윤음	2	2	4
	0.0	100			50.00	50.00	
어제경세문답	13	139	152	몽어노걸대	15	103	118
	8.55	91.45			12.71	87.29	
어제경민음	0	9	9	무예도보통지	1	2	3
	0.0	100			33.33	66.67	
어제경세문답 속록	7	143	150	인어대방	47	56	103
	4.67	95.33			45.63	54.37	
어제조훈	5	59	64	침해몽어	5	38	43
	7.81	92.19			11.63	88.37	
박통사신석언 해	14	148	162	유양주포천부로민 인등서	0	1	1
	8.64	91.36			0.0	100	
어제경세편	8	51	59	증수무원론	7	98	105
	13.56	86.44			6.67	93.33	

어제백행원	3	8	11	제주대정정의운음	0	2	2
	27.27	72.73			0.0	100	
십구사략언해	7	92	99	유제도도신운음	0	6	6
	7.07	92.93			0.0	100	
역어유해보	7	12	19	유호남옥읍운음	0	7	7
	36.84	63.16			0.0	100	
염불보권문- 해인사	18	45	63	양로무농운음	0	10	10
	28.57	71.43			0.0	100	
효유운음	0	8	8	중간노결대언해	5	109	114
	0.0	100			4.39	95.61	
명의록	38	404	442	경신록언석	46	107	153
	8.60	91.40			30.07	69.93	
소아론	0	1	1	전설인과곡	20	0	20
	0.0	100			100	0.0	
방언유석	9	19	28	오름행실도	23	102	125
	32.14	67.86			18.40	81.60	

18세기 ‘못’ 단형부정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0 ㄱ. 서로 친흔 차는 반드시 기리기를 **못** 밋출 드시 호고 <明義卷首上:12a>  
 ㄴ. 지금 **못** 흐엿더니 종용히 생각흐니 <續明2:17a>  
 ㄷ. 또 브어술 求흐야 **못** 得흐며 <御內3:47a>  
 ㄹ. 지조 비호고 能히 말 **못** 흐면 錦繡를 안 민들며 <捷蒙1:15b>  
 ㅁ. 또 넘불흐기 슬커나 잇쳐나 흐야 넘불 **못** 흐거든 <念海 일사본, 22b>

(10ㄱ)은 고유어 어간을 가진 동사가 단형부정문을 이룬 예이고, (10ㄴ)의 경우에는 ‘흐-’가 단형부정문을 이룬 예이다. ‘아니’ 단형부정문과 달리 존재사가 ‘못’ 단형부정문을 이룬 용례가 나타나지 않으며, 형용사가 ‘못’

단형부정문을 구성한 경우도 없다. 존재사나 형용사는 현대국어에서 단형 부정문 형성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8세기 부정문에서는 ‘아니’ 부정문보다 ‘못’ 부정문에서 그 제약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10ㄷ)은 한자어 어근을 가진 동사가 부정소 ‘못’과 단형부정문을 이룬 예인데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부정문은 18세기 부정문에서 그 용례가 극히 적다. (10ㄷ)과 (10ㄱ)은 각각 고유어 체언인 ‘말’과 한자어 체언 ‘넘불’이 파생용언의 선행 어근으로 쓰일 때 전형적인 단형부정문을 이루지 못하고 어근과 접사 사이에 부정소를 삽입하는 형식의 단형부정문을 이룬 예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부정문 유형 역시 그 비율이 ‘아니’ 단형부정문과 비교하면 높지 않다.

18세기 ‘못’ 단형부정문 중 특이한 유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1) ㄱ. 명종헌 사름미 큰 니익과 하탈을 득헛릿가 **몰**헛릿가 <地藏中17b>  
 ㄴ. 이제 거의 저키 브리워 겨읍시니잇가 **못**헛야 겨읍시니잇가 <警問19b>  
 ㄷ. 主人아 썩이 잇느냐 **못**헛엇느냐 <老乞重上20a>  
 ㄹ. 宋 陣氏 | 서방 마잔 디 열홀이 **몰**헛야 지아비 변방의 슈자리 갈시 <女四4:16a>  
 ㄱ. 拉不動 쓰어 움죽 **못**헛다 <亥部方言33b>  
 ㄴ. 拉不動 브어 움죽 **못**헛다 <譯語補57a>

18세기의 ‘못’ 단형부정문에는 ‘아니’ 단형부정문과 달리 부정소의 위치 이동과 관련한 예문은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소 ‘못’은 모두 서술어의 앞에 위치하고 있다. (11ㄱ)에서 ‘몰헛-’는 서술어 ‘득헛릿가’의 부정 대동사 기능을 하고 있다. (11ㄴ)은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성을 이루고 있는 서술어에서 ‘못헛-’가 본용언의 부정 대동사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11ㄷ)에서 ‘못헛-’의 의미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과 차이가 있다. 문맥을 살펴보면

음식 준비를 하면서 주인에게 떡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직역하면 ‘떡이 있느냐, 못하였느냐?’로 해석되지만 의역하면 ‘떡이 되었느냐, 아직 안 되었느냐?’라는 의미이다. 이 부분은 원문의 ‘餅有了不曾’을 직역하는 바람에 나타난 부자연스러운 언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1ㄷ)은 ‘陣氏が 서방을 맞은 지 열흘이 못 되어’라는 의미인데 ‘못 되어’ 대신에 ‘못ㅎ-’가 쓰이고 있다. (11ㄱ, ㄴ)은 모두 ‘拉不動’를 해석을 한 것이다. ‘動’은 일반적으로는 근대국어 자료에서 ‘움죽이-, 움즈기-, 움죽기-’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는 어간의 일부인 ‘움죽’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예는 ‘방언유석’과 ‘역어유해보’에서만 나타나는데 ‘動’에 대한 같은 문헌의 다른 예문에서는 ‘움죽이다’로 나타나고 있다.<sup>14)</sup> 어간의 일부와 연결어미가 생략된 것이라면 장형부정문으로도 볼 수 있으나 그 형태가 특이하고 생략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sup>15)</sup>

18세기 ‘못’ 장형부정문을 연결어미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 (12) ㄱ. 가히 범역헌 사름의게 **베프디 못홀** 거시니 <蘭義2:42b>  
 ㄴ. 두 비목과 혼 결새 다 **두뻬지 못ㅎ니** 엇지 능히 堅固 牢固 壯히리오  
 <朴新2:13a>  
 ㄷ. 쏘 알능ㅎ오며 전비ㅎ오매 **비옴도 못ㅎ오며 듯줍도 못ㅎ오니**  
 <警問續16b>  
 ㄹ. **아든 못ㅎ여도** 神妙히 너기옵니 <改捷9:26b>  
 ㄱ. 果然 구차ㅎ 일이 만스오매 **ㅎ기 備價튼 문ㅎ을지라도** <隣語  
 6:18a>

14) 같은 문헌에서 ‘움죽이다[動]’의 다른 예를 보면 ‘地軟顛動 쉬여 움죽이다 <譯語補 4a>, 不動樨 움죽이지 아니타 <亥部方言32b>’로 나타났다.

15) 그렇지만 어휘와 관련하여 부정소가 포함된 것이 분명하며 부정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도 분명하므로 일단 단형부정문의 특이한 예로 설정한다.

(12ㄱ)은 장형부정문 구성에서 연결어미로 ‘-디’가 쓰인 예문이며 (12ㄴ)은 구개음화의 영향으로 ‘-디’가 ‘-지’로 바뀌어 나타난 예이다. ‘아니’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못’ 장형부정문에서도 18세기 전체적으로는 ‘-디’의 쓰임이 우세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지’의 쓰임이 확대되고 있다. (12ㄷ)에 서는 연결어미로 ‘-도’가 쓰이고 있는데 ‘아니’ 장형부정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12ㄷ)의 예와 같이 대구를 이루는 두 서술어를 부정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12ㄹ)의 ‘-든’과 (12ㅁ)의 ‘-든’은 역시 연결어미로 ‘못’ 장형부정문에 쓰인 예이다. ‘아니’ 부정문의 경우와 달리 18세기 ‘못’ 장형 부정문에서는 연결어미 ‘-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디’와 ‘-지’를 제외한 연결어미가 쓰인 용례는 ‘못’ 장형부정문의 경우에도 많지 않다. 연결어미에 따라 장형부정문의 유형을 분류한 자세한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7〉 연결어미에 따른 ‘못’ 장형부정문의 유형 분류

연결어미	-디	-지	특이 형태	소계
용례	2,836	1,615	22	4,473
비율	63.40	36.11	0.49	100

18세기의 ‘못’ 장형부정문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3) ㄱ. 감히 방조히 드옵기는 디난 스텝에도 **못디 못흐엿습논디라** <續明 1:2b>  
 ㄴ. 이제는 지아비를 일허시니 능히 홀로 **잇디 못홀디라** <五倫烈63a>  
 ㄷ. 이 네히 겨집의 큰 德이오 可히 **업디 못홀** 거시라 <御內1:12b>  
 ㄹ. 그 일흠을 숨겨시매 엇기 **쉽디 못흐니** <闡義4:48b>  
 ㅁ. 몸도 가히 **속이디 못흐려든** 흐믈며 귀신이며 하늘이나 <祖訓 24a>

- 비. 차마 어미를 **써나디 못하여** 험가지로 실어 갔더니 <五倫孝51a>  
 八. 만경이 세 상소를 **장스하디 못하여** 단양에서 머물며 <五倫朋  
 19a>  
 〇. 그 감식이 만일 붉으면 엇디 이를 **분변티 못하리오** <警問22a>

(13ㄱ)은 고유어 동사가 장형부정을 이룬 전형적인 ‘못’ 장형부정문이고, (13ㄴ)과 (13ㄷ)은 존재사가 장형부정문을 이룬 것이다. 존재사는 ‘못’ 단형부정문을 구성한 예는 없었으나 ‘못’ 장형부정문의 경우에는 그 예가 일부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못’ 부정문의 장형부정문화가 ‘아니’ 부정문보다 앞서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ㄷ)의 경우에는 형용사가 ‘못’ 부정문에서 장형부정문을 이룬 예이다. 부정소 ‘못’이 쓰인 단형부정문의 경우와 달리 일반적으로 ‘못’ 장형부정문의 경우에는 품사에 따른 부정문 형성 제약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ㄹ)은 사동접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장형부정문을 이룬 예이고 (13ㅁ)은 용언어간끼리 결합한 합성용언이 장형부정문을 이룬 예이다. (13ㄴ)과 (13ㅇ)은 각각 체언 어근을 가진 파생용언이 장형부정문을 이룬 예인데 단형부정문과 비교하여 그 용례가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언의 경우에는 단형부정문 형성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8세기 부정문에서는 (10ㄷ)과 같은 단형부정문의 유형이 극히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10ㄷ, ㄹ)과 같은 유형도 그 수가 많지 않다. 결국 한자어나 체언 어근을 가진 용언의 부정문은 ‘못’ 부정문의 경우 단형부정문 형성의 제약으로 인해 장형부정문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못’ 장형부정문 중에서 특이한 형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4) ㄱ. 누의 올라 술을 두어 밋치 잔을 **드지 못하야서** <種德上30a>  
 ㄴ. 臣이 **하디 못하며** 父 | **사디 못하며** 子 | **구디 못하면** <論栗

3:28b&gt;

ㄷ. 장년의 정스ᄃᆞᆫ 때 다스리며 **다스디 못홀** 근본이니 <祖訓06b>

(14ㄱ)은 ‘아니’ 부정문의 연결어미와 같이 소위 ‘ㄹ탈락 용언’의 활용상 특징을 보이는 예문이다. (14ㄴ)의 경우에는 장형부정문에서 한자어를 어근으로 가진 특수한 용언이 쓰인 예이다. ‘臣ᄃᆞ-, 父ᄃᆞ-, 子ᄃᆞ-’ 등의 용언은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면 ‘신하답다, 아버지답다, 자식답다’의 의미로 보이는데 접미사 ‘-답’의 개입 없이 위와 같은 용례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예문은 주로 사서언해류와 경서 언해 자료에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언해하는 과정에서 한자어를 그대로 살려 쓰려는 의도로 인해 이러한 용언이 장형부정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sup>16)</sup> (14ㄷ)은 장형부정문 부분이 선행절의 ‘다스리-’를 부정하는 내용인데 선행절의 용언 ‘다스리-’의 어간 일부가 생략된 채 ‘다스-’로 나타나고 있다.<sup>17)</sup>

서술어에 따라 ‘못’ 부정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표-8> 서술어의 형태적 특징에 따른 ‘못’ 부정문의 비율

형태	유형	사례	비율	어간, 어근 특성	
				고유어	한자어
단일어	단형부정문	501	15.12	13.60	
	장형부정문	2,813	84.88	76.36	
	소계	3,314	100.0		

16) 이러한 한자어의 남용 현상은 독자를 고려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17) ‘못’ 부정문에서 어간의 일부가 생략되는 것은 (11ㄱ, ㄷ)에서 나타난 경우가 있으나 이번 용례에서는 연결어미가 확인되므로 장형부정문의 특이 형태로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예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18) ‘못’ 부정문 중 장형부정문에서 특이한 연결어미를 나타내는 부정문을 제외하고 총 5,005개의 부정문 분석하였는데 고유어 어간이나 어근을 가진 서술어가 3,684개, 한자어 어근을 가진 서술어가 1,321개로 나타났다.

파생어	못 고유어 어간+접사	8	0.50	0.22	
	못 고유어 어근+ㅎ다	0	0.00	0.00	
	못 한자 어근+ㅎ다	3	0.19		0.23
	고유어 어근 못 ㅎ다	9	0.56	0.24	
	한자 어근 못 ㅎ다	30	1.88		2.27
	고유어 어간+접사+디 못 ㅎ다	160	10.04	4.34	
	고유어 어근+ㅎ디 못 ㅎ다	95	5.96	2.58	
	한자 어근+ㅎ디 못 ㅎ다	1,288	80.85		97.50
	소계	1,593	100.0		
합성어	못 고유어 합성어간	3	3.06	0.08	
	고유어 어근 못 ㅎ다	0	0.00	0.00	
	고유어 어간+디 못 ㅎ다	95	96.94	2.58	
	소계	98	100.0	100.0	100.0

부정문의 서술어가 단일어인 경우에는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84.88%로 ‘아니’보다도 높고, ‘못’ 부정문 평균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파생어의 경우에는 단형부정문 3.13%를 제외하면 모두 장형부정문으로만 쓰이고 있다. 이 경우에는 ‘아니’ 부정문보다도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합성어의 경우에는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96.94%로 ‘아니’ 부정문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한자어 어근을 가진 서술어의 경우에는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97.50%로 매우 높게 나타나서 ‘아니’ 부정문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18세기 이전의 부정문에서도 그 예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니’ 부정문과 달리 18세기 ‘못’ 부정문에서는 ‘아니 고유어 어근+ㅎ다’와 ‘고유어 어근 아니 ㅎ다’ 유형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18세기 ‘못’ 부정문이 ‘아니’ 부정문보다 장형부정문화가 더 강력하게 진행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사에 따른 단형부정문 형성 제약과 한자어 어근이나 체언 어근을 가진 용언의 단형부정문 형성 제약, 그리고 합성용언의 단형 부정문 형성 제약이 ‘못’

부정문에서 더 강력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 IV. 이중부정문

18세기 부정문 자료 중에 이중부정문도 상당수가 보인다. 이 경우 이중 부정문은 의미상으로는 부정이 아니라 강조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부정소가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문의 범주에 포함하여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중부정문으로 쓰인 18세기의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5) 가. 그 막음을 求티 아니히디 묻히려니 그러나 求호는 배 아당히며  
<御內2:10a>
- 나. 다시곰 받지 아니치 묻홀 일을 仔細히 슬오려 위호여 <改捷8:7b~8a>
- 다. 즉제 아니 보지 묻홀 일이기에 아라시게 호여 御案内 습느이다  
<改捷7:14b~15a>
- 르. 不足홀찌라도 분별 아니치 묻홀 일은 서르 時分과 갑시 <改捷4:24a>
- 미. 이곳흔 쎄의 난환을 가히 아니 결납지 못히려라 호야 <明義卷首上:31b>
- 비. 비록 틱령다이 아니나 아니 자바가디 묻홀디니 <念海 일사본, 왕량반흔전 3ab>
- 사. 그 토스 밧기를 가히 엄히 아니티 못홀 거시니 <闡義2:16a>
- 오. ㅁ르사디 아니 묻히려니와 엇디 시러곰 仁히리오 <論栗1:51a>

(15가)은 장형의 ‘아니’ 부정문에 다시 ‘못’ 장형부정문이 겹친 형식의 이중부정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이중부정문은 현대국어에서는 잘 쓰

이지 않는 것이다. 17세기 자료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이중부정문은 선행하는 서술어가 한자어나 체언 어근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18세기 자료에서는 (15ㄴ)처럼 단일어인 서술어의 경우에도 이러한 유형의 이중부정문이 나타나고 있다. (15ㄷ~ㄱ)은 ‘아니’ 단형부정문에 ‘못’ 장형부정문이 이어진 이중부정문이다. 그 중에서 (15ㄷ)은 선행 부정문이 일반적인 ‘아니’ 단형부정문, (15ㄷ)은 ‘분별하-’와 같이 한자어 어근과 접사 사이에 부정소 ‘아니’가 끼어든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예이다. (15ㄱ)은 서술어가 (15ㄷ)과 같은 조건임에도 선행 부정문이 일반적인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고, (15ㄴ)은 서술어가 합성어인 경우에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며, (15ㄴ)은 단형부정문 ‘아니하-’가 그대로 이중부정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15ㅇ)은 ‘못하-’라는 단형부정문 앞에 바로 ‘아니’ 부정소가 다시 결합하여 이중부정문을 이룬 특이한 예이다.<sup>19)</sup> (15ㄱ~ㅇ)의 예는 18세기 자료에서 실제로는 그 예가 그리 많지 않다.

- (16) ㄱ. 일즉 글을 그치고 ㅁ음이 서늘하디 아니티 아니하노라 <御內序 5a>  
 ㄴ. 가히 重티 아니티 아닌디라 <女四1:5b>  
 ㄷ. 내 이에 일즉 책을 덥고 홍탄치 아니치 아니호라 <自省編外27b>  
 ㄹ. 숲드시 스양하고 반지 아니미 아니라 바다서 훌테도 업스니 <改捷7:10b>  
 ㄱ. 역적의 괴슈를 구하지 못할 줄을 아지 못하미 아니로되 <중외윤음12a>  
 ㄴ. 매 맛기에 니르러는 마디 못하여 집 밧긔 막을 의지하고 이셔 <五倫孝11b>

19) 17세기의 부정문에서는 ‘너희 ㅁ을 능히 아니 아니홀 디어다 <書傳諺解5, 10b>’와 같이 부정소 ‘아니’가 겹쳐서 나타나는 특이한 부정문이 있었다. 그러나 18세기에서는 이와 같이 동일한 부정소가 연속으로 나타나는 이중부정문은 보이지 않는다.

(16ㄱ~ㄷ)은 장형의 ‘아니’ 부정문이 연이어 이중부정문을 형성한 예이다. 이러한 이중부정문은 현대국어에서는 어색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부정문은 주로 접사 ‘-ㅎ-’와 결합한 파생어를 서술어로 갖는 경우가 많은데 선행 어근이 한자어나 체언인 경우가 많아서 단형부정문 형성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방식의 이중부정문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의 이중부정문은 ‘어제내훈, 여사서, 어제자성록’에서만 그 예가 나타난다. 많은 예는 아니지만 (16ㄴ)처럼 단일어의 서술어가 이중부정문을 구성한 경우도 있는데 후행 부정문은 장형부정문이 아니라 선행 부정문을 명사절로 받는 ‘아니라’ 부정문이다. (16ㄱ)도 (16ㄴ)과 유사한 형식의 이중부정문인데 이 경우에는 선행 부정문이 ‘못’ 장형부정문이라는 점만 차이가 있다. (16ㄴ)은 ‘마디 못ㅎ-’ 형식의 이중부정문이다. ‘마디’에서 ‘마-’는 부정명령이나 부정청유와 관련한 보조용언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예문에서는 부정명령문이나 부정청유문과 관련된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 ‘마-’가 ‘못ㅎ-’와 연어 관계를 이루면서 관용화하면서 문법화를 거쳐 하나의 강조 표현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sup>20)</sup>

## V. 결론

지금까지 18세기의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부정문에 대해 유형과 그 비율 등을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18세기 부정문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본고를 맺고자 한다.

20) 이러한 표현은 이미 중세국어 자료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중부정문에 포함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일단 ‘마-’와 ‘못ㅎ-’의 형태가 쓰인 점을 고려하여 이중부정문에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이전 시기에 비하여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아니’ 부정문과 ‘못’ 부정문에 관계없이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형화는 체언 어근을 가진 서술어의 부정문에서 ‘체언 어근+부정소(아니, 못)+하다’ 유형의 단형부정문이 매우 많이 감소하고 장형부정문으로 대체되었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언 어근+부정소(아니, 못)+하다’ 유형은 일반적인 단형부정문의 변형인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유형마저 장형부정문으로 바뀌면서 장형화의 비율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형부정문의 비율 증가는 이전과 달리 ‘아니’ 부정문보다도 ‘못’ 부정문에서 더 크게 증가하여 ‘못’ 부정문의 장형부정문화가 ‘아니’ 부정문을 앞서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실 부정문의 형성에서 가장 제약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유형이 ‘못’ 부정문 중 단형부정문이다. ‘못’ 부정문의 경우 체언 어근을 가진 서술어의 부정문 형성에서 단형부정문 형성 제약이 ‘아니’ 부정문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단형부정문 형성 제약의 문제로 인해 ‘못’ 부정문의 장형화가 좀더 강력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료 특성과 관련하여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서언해의 경우 과도한 한자어 사용이 특징인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장형부정문화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구어의 영향으로 비교적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던 역학서에서도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나타나서 대부분의 역학서에서도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이전 시기에 비하여 높아졌다.

넷째, 서술어에 쓰인 용언을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분류하여 부정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니’, ‘못’ 부정문에 관계없이 ‘합성어>파생어>단일어’ 순으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이러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 역시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사실상 합성어와 파생어 간의 장형부정문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단일어에서는 18세기 장형부정문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합성어나 파생어와 일정한 비율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역시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나타나는 단형부정문의 형성 제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형부정문 형성 제약은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8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제약이 더욱 진행되면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완진, 『노걸대언해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연구원, 1976.
- 김영근, 『박통사·노걸대 언해의 부정 표현』, 『계명어문학』 4, 계명대학교, 1988, pp. 1~34.
- 박형우, 『16세기 국어 부정문 연구』, 『韓民族語文學』 47, 韓民族語文學會, 2005, pp. 1~24.
- 박형우, 『17세기 국어 부정문 연구-‘아니’, ‘못’ 부정문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9, 한국어학회, 2008, pp. 223~257.
- 변정민, 『근대국어 부정법』,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 박이정, 1998, pp. 411~440.
- 이태욱, 『첩해신어(捷解新語)류에 나타난 17, 18 세기 국어 부정법(否定法) 고찰』, 『인문과학』 31,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1, pp. 89~116.
- 임용기·홍윤표 편,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2006.
- 정영인, 『근대국어 부정법에 대한 한 고찰』, 『어학』 16, 전북대학교, 1989, pp. 129~143.
- 허재영, 『부정문의 통시적 연구』, 역락, 2002.
- 홍윤표, 『국어사 시대구분의 문제점과 문법사의 측면에서 본 시대구분』, 『국어학』 25, 국어학회, 1995, pp. 319~333.
- 홍윤표, 『국어사 연구를 위한 전자자료 구축의 현황과 과제』,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2006, pp. 87~143.
- 황병순, 『국어 부정법의 통시적 고찰』, 『어문학』 40, 형설출판사, 1980, pp. 119~138.

<b>Abstract</b>
-----------------

## A Study on Negative Sentences in the 18th century

Park, Hyeong-w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characteristics about Korean negative sentences in the 18th century Korean literatures. The method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and collect statistics of negative sentences in the 18th century Korean literatures, then to reclassify according to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edicates. This paper explain the feature and reason of the change of Korean negative sentences in the 18th century by these methods. The result of this paper is as follow.

Firstly, the tendency of long forms of negative sentences was stronger than before in the 18th century.

Secondly, the tendency of long forms advanced faster in 'mot' negative sentences than 'ani' negative sentences.

Thirdly, according to the 18th century Korean literatures, there was a little difference in the tendency of long forms. Specially such tendency had more influences on 『Saseoeonhae』 and Translation books.

Finally, the tendency of long forms was concerned with the morphologic construction of predicates in negative sentences. A degree of the tendency was as follow. "compound words > derivative words > single words".

Key-words : negative sentences in the 18th century, the tendency of long forms in negative sentences, the restrictions on forming short forms in negative sentences, short form negation, long form negation

박형우

소속 :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주소 :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전화번호 : 043-230-3549

전자우편 : phwcgs@knue.ac.kr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12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12월 26일 게재 확정됨.